

LAD저스 오타니, 월드투어 서울 기간 시몬스 침대서 ‘꿀잠’

다저스 선수들, 서울 방문 기간에 시몬스 침대 공급 호텔에서 투숙

국내 주요 특급호텔 침대 시장서 시몬스 침대 점유율 90% 절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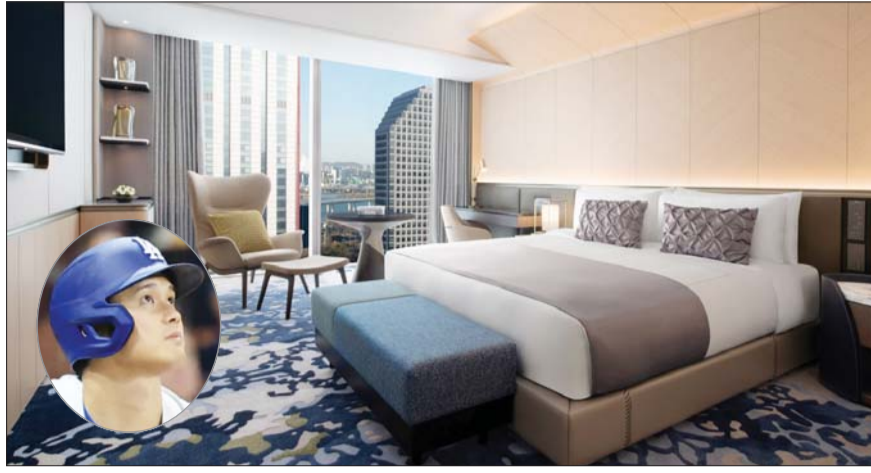
LAD저스 오타니 쇼헤이가 시몬스 침대에 누웠다.

지난 21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MLB 월드투어 서울 시리즈 2024’를 위해 한국에 머무는 동안 서울 여의도에 있는 호텔 페어몬트 엠베서더 서울에 투숙했기 때문이다.

페어몬트 엠베서더 서울은 ‘특급호텔 침대’로 잘 알려진 시몬스가 침대를 공급한 국내 호텔 중 한 곳이다.

오타니를 비롯한 LAD저스 선수들은 이 호텔에 묵었다.

25일 시몬스에 따르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전세계 ‘TOP 20’ 호텔 중 18개 국내의 호텔 브랜드가 시몬스 침대를 선택했다. 메리어트&스타우드, 힐튼, IHG 그룹, 아코르, 하얏트, 포시즌스, 반얀트리, 호텔 신라, 신세계 조선, 호



서울 여의도에 있는 ‘페어몬트 엠베서더 서울’에는 시몬스의 대표 매트리스 컬렉션인 ‘뷰티리스트’가 고객들을 맞는다. 작은 사진은 LAD저스의 오타니 쇼헤이. /시몬스·뉴시스

텔 롯데, 워커히 호텔앤리조트, 엠베서더 그룹, 파라다이스 그룹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최근 4년간 국내에서 새로운 문을 열거나 리뉴얼한 호텔 대부분에선 시몬스 침대를 만날 수 있다.

이번에 오타니가 묵은 페어몬트 엠베서더 서울을 비롯해 메리어트 제주 리조트 앤 스파, 파르나스 호텔 제주, 그랜드 조선 제주, 그랜드 하얏트 제주, 대구 메리어트 호텔&레지던스, 조

션 팰리스 강남, 롯데호텔 월드,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등에 모두 시몬스의 침대가 들어가 있다. 이외에 서울 신라호텔, 포시즌스 호텔 서울, 시그니엘 서울·부산 등도 시몬스 침대를 비치했다. 시몬스의 국내 주요 특급호텔 침대시장 점유율은 90% 가량에 달할 정도로 절대적이다.

한편 현대인들은 각종 스트레스와 바쁜 일상으로 편안한 휴식과 특히 ‘숙

면’을 갈망하고 있다. 편안한 침대와 조용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하며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여행을 찾는 것이 대세가 된 셈이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 참여한 한국인 여행객 중 84%가 ‘여행 중 일상과 단절되는 진정한 휴식’을 원한다고 답했다. 휴가를 떠났을 때 가장 하고 싶어 하는 활동으로 ‘수면’을 1순위(21%)로 꼽았다. 호텔에서 경험하는 편안한 침대는 꿀잠을 위한 필수 요소가 된 셈이다.

시몬스 침대의 핵심기술인 ‘포켓스프링’은 100% 포스코(POSCO)가 제조하는 최고 품질의 경강선을 사용한다. 포켓스프링을 감싸는 부직포는 이탈리아이탈펠트로의 고밀도·고인장력의 특수 부직포를 사용해 침대 이용 시 소음을 막고 스프링의 마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호텔업계 관계자는 “‘꿀잠 여행’이 하나의 트렌드로 떠오를 정도로 여행시 편안하고 안락한 수면을 원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KCC글라스 커튼월 록 전용 유리 ‘씨룩스’를 시공한 아파트 외벽 모습.

KCC글라스 아파트 외벽마감 전용 코팅 유리 ‘씨룩스’ 출시

KCC글라스가 통유리 외벽처럼 보이는 외벽 마감 전용 코팅유리(커튼월 록) ‘씨룩스(C.LOOKS)’를 출시했다. 25일 KCC글라스에 따르면 아파트 건축 트렌드에 맞춰 아파트의 외벽에 시공해 미려한 외관을 구현할 수 있는 커튼월 록이 유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아파트에 적용한 커튼월 록 유리로는 원판 유리를 대부분 사용해 왔지만 제품들은 코팅 처리가 돼 있지 않아 미관상 고급스럽지 못하고 유리를 통해 내부의 먼지나 오염이 외부에서 잘 보이는 단점이 있었다.

이런 원판 유리의 단점을 보완해 아파트에서도 고급 상업용 커튼월 건축물과 같은 미려하고 고급스러운 외관을 구현하기 위해 KCC글라스가 개발한 제품이 커튼월 록 전용 코팅유리인 씨룩스다.

KCC글라스는 씨룩스에 금속코팅을 적용해 원판 유리의 단점을 보완하는 한편 금속코팅의 내구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코팅유리 제품임에도 커튼월 록을 위한 단판 시공이 가능하게 했다.

/김승호 기자

대·중기협력재단 기술유출 예방 위해 비대면 종합상담 실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예방을 위해 비대면으로도 기술보호와 관련한 종합상담이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를 개편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지난달 8일 ‘제10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의 대통령 모두 발언을 적극 반영했다.

중소기업이 법률 자문을 비대면 방식으로도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존 방식인 유선 또는 대면 외에도 화상회의를 통한 상담도 허용한다.

해당 서비스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율타리’에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편했다. 이날부터 지원 예정이다. 기술보호 기초상담부터 기술침해 신고 접수 및 연계 등 종합상담까지 지원한다.

김영환 협력재단 사무총장은 “이번 개편을 통해 기술보호 및 기술탈취와 관련한 고민이 많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MINI 역사·미래 한눈에... ‘MINI 헤리티지 & 비욘드’展

오는 29일부터 K현대미술관서 개최 일렉트릭 MINI 쿠퍼·컨트리맨 공개

“MINI 고객들은 자신의 개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똑같은 차량은 한 대도 없다.”

정수원 MINI 총괄 본부장은 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자리한 K현대미술관에서 ‘MINI 헤리티지&비욘드’ 전시를 앞서 진행된 미디어데이에서 MINI 고객들의 차이점을 이같이 말했다. MINI는 국내 시장 진출 이후 성별이나 나이 등과 무관하게 자신만의 개성과 젊은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고객들의 선호도가 높은 차량으로 잘 알려져 있다.

MINI는 브랜드 대표 모델인 MINI 쿠퍼와 MINI 컨트리맨 순수전기 모델의 국내 출시를 앞두고 브랜드 역사와 미래 청사진을 볼 수 있는 전시회를 K현대미술관에서 이달 29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전시회는 브



MINI 코리아 ‘MINI 헤리티지 & 비욘드’ 전시회를 통해 공개한 뉴 올-일렉트릭 MINI 쿠퍼(왼쪽), 뉴 올-일렉트릭 MINI 컨트리맨.

랜드 특유의 아이코닉한 디자인과 독보적인 헤리티지, 유패한 감성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미니코리아는 이 자리를 통해 소비자 개성을 중시하는 브랜드 정체성을 더 확고히 한다는 전략이다.

이번 전시는 시간 흐름에 따라 ‘헤리티지 존(Heritage Zone)’과 ‘비욘드 존(Beyond Zone)’으로 나뉜다. 먼저 본고장 영국 런던의 풍경을 재현해 클

래식 MINI 모델을 전시한 헤리티지 존에선 브랜드의 전통을 느낄 수 있다.

MINI 컨버터블과 컨트리맨, 고성능 MINI JCW 모델에 이르기까지 현행 미니의 다양한 라인업도 전시돼 있다. 판매 종료를 예고한 MINI 클럽맨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공간도 있다. 이곳에는 MINI 클럽맨의 최종 모델이 될 MINI 클럽맨 파이널 에디션을 만날 수 있다.

MINI 비욘드 존에는 6월 이후 국내 출시가 예정된 뉴 올-일렉트릭 MINI 쿠퍼와 뉴 올-일렉트릭 MINI 컨트리맨을 전시한다. 특히 MINI 브랜드에서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 중인 컨트리맨의 전기차 모델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전시장에서는 완전히 새롭게 탄생한 MINI의 최신 순수전기 모델을 미리 접할 수 있으며, 삼성 디스플레이와 협업해 전세계 최초로 선보이는 자동차용 원형 OLED 디스플레이와 MINIO S 9으로 진화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미리 살펴볼 수 있다.

한편 MINI 코리아는 오는 6월 이후 순수전기 모델인 뉴 올-일렉트릭 MINI 쿠퍼와 뉴 올-일렉트릭 MINI 컨트리맨을 출시할 예정이며 3분기 중으로 가솔린 모델인 뉴 MINI 쿠퍼 3-도어 및 5-도어, 뉴 MINI 쿠퍼 컨버터블 등 총 5종의 최신 MINI를 올해 선보일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

중견련, 공정거래법 변화 대응방안 모색

중견기업 공정거래정책 설명회 열어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회원사들 준법경영 지원 강화에 나섰다.

중견련은 지난 22일 중견기업 공정거래정책 설명회를 열고 공정거래 분야 법·제도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고 25일 밝혔다.

설명회는 중견기업을 위한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개관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제 발표와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CP) 보편 운영 사례 소개 및 질의응답으로 구성했다.

/김승호 기자

중진공, 스마트공장 등 인재 5.5만명 육성

‘2024년 연수사업’ 교육생 모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혁신 성장을 이끌 인재 5만5000명을 육성한다.

중진공은 스마트공장, 디지털 신산업, 뿌리산업 등 ‘2024년 연수사업’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스마트제조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구축 및 추진실무’, ‘ESG와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시스템 구축’ 등 실습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해 스마트 제조 분야 전문 인력 1만6500명

을 양성한다. 또한 ‘미래형 자동차 핵심기술의 이해’, ‘시스템반도체 제조공정 연수’ 등 총 220개 연수과정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 인재 3300명도 추가로 확보한다.

이외에 중진공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등 정책 변화와 관련한 교육과정을 제공해 중소기업의 발 빠른 현장 대응도 돕는다.

올해는 디지털 제조혁신 등 중소기업의 산업 환경과 정책변화 대응을 위한 연수과정을 중점 개설해 핵심 인력 양성에 주력한다.

/김승호 기자